김성안 기아차 광주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광주지적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본부 장애인 초청 '문화 사회공헌'

영화 관람후 저녁식사 진행

기아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2일 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보호작업장소속 장애인들을 첨단 메가박스로 초청해 '행복한 문화동행' 행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문화동행 행사는 평소 문화체험의 기회가 부족했던 지적장애인들에게 영화관람을 통해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고, 더불어 장애인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기아차와 장애인단체 사이의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아차 광주지역본부의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날 행사에는 기아차 광주지역본 임직원과 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5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영화 '성난황소'를 관람한 후 저녁식사를 나누며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랜만의 영화관람에 장애인들은 즐겁게 영화를 보고 영화가 끝난 후에도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기억에 남는 추억을 쌓았으며 이러한 기회를 제공한 기아차 광주지역본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영화 관람을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 활동에 대한 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 됐기를 바란다."며 "기아차 광주지역본부는 지역사회 고객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해 11월에도 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보호작업장소속장애인들을 상무지구에 위치한 기분좋은 극장으로 초청해 함께 식사를 나누고 연극을 관람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

섬노예·노인 학대 등 인권 사각지대 살핀다

전남, 도민 인권 첫 실태조사

인권 침해 사례·구제 방안 분석도 연구용역 발주… 내년 상반기 진행

전남도청 전경

전남 도민의 인권의식 수준과 인권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진다.

도내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인권 침해 사례 조사와 관련한 용역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전남도는 13일 도민 인권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반적인 도민 인권의식 수준과 향상의 정도를 알아보고 도내 다양한 사회계층을 상대로 한 인권 대상별 개별 조사도 한다.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권의식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 사각지대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도 함께할 예정이다.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노인 대상 인권 침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섬이나 어선 등 인권 취약 공간에서 이뤄지는 인권 침해사례도 조사한다.

전남지역에서는 이른바 섬 노예 사건 등 장애인,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착취, 학대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아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실태조사 방식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가장 적절한 방식을 정할 방침이다.

용역을 통해 조사 대상별 인권의식 실태 지표를 개발하고. 사회적 약자 인권 구제 방안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뤄진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행정 수행 방안 마련과 인권 행정 수요에 대한 조사 분석도 동시에 수행한다.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를 위해 인권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등 7명으로 평가위원도 구성 중이다.

연구용역 기간을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예상한 만큼 도민 인권실태조사는 내년 상반기 중 착수할 것으로 전남도는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간헐적이고 지엽적인 인권실태조사는 가끔 이뤄졌지만, 도민 전체를 상대로 한 인권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남도 인권개선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완도군 태풍피해 복구 숨통… 27억 추가 확보

완도군은 태풍 '솔릭'과 '콩레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7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완도군의 사유재산 및 공공시설 총 피해액은 71억 6800만 원으로 피해 복구비는 134억 7600만 원이다.

군은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 지원금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모두 지급하였지만, 공공시설 피해 복구는 예산이 부족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소규모 공공시설 등은 국비 지원에서 제외돼 기초기반시설 미복구로 주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군은 두 차례 전남도에 태풍 피해 복구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으며, 지난 11월 말 전남도 예비비 30억 원을 긴급 지원받았다.

전라남도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도 국비가 5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고, 16개 시·도지사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해 협조를 구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의 어려운 실정을 파악하고 내년 우기 이전에 피해 복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7억 원을 지원 결정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전라남도와 행정안전부의 연이은 지원으로 태풍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돼서 다행이며, 76건의 피해 복구 사업에 대해 실시 설계를 진행 중이고 피해 복구를 철저히 해 피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이제건 기자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 예산 1138억 증액

총 1834억 확보… 사업 추진 탄력 1단계 공정률 23%… 2024년 개통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광주~강진 구간) 사업비가 1138억 증액돼 총 사업비 1834억원을 확보했다.

13일 완도군에 따르면 정부의 SOC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당초 정부예산안에 696억원이 반영됐으나 여·야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1138억원이 증액됐다. 이는 광주·전남 사회기반시설 사업비 중 증액 규모가 가장 큰 것이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사업은 총 연장 88.6㎞로 2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국책 사업이다. 1단계인 광주~강진 구간이 지난해 8월 착공돼 현재 공정률 23%를 보이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국고 확보를 위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결실을 맺었다"며 "순조롭게 추진 중인 1단계 사업과는 별도로 2단계 구간(강진 성전~ 해남 남창)에 대해서도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8월 착공된 광주~완도 고속도로사업 1단계 사업은 7공구 51.1km로 광주 벽진에서 강진 성전까지 총 사업비는 1조 4553억 원이다. 4차로 폭원23.4m, 교량 28개소, 터널 9개소, 나들목 7개소, 설계 속도 100km/h로 2024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광주=이제건 기자 wando1106@

전남경찰청

6·13지방선거 흑색선전 최다 7명 구속·286명 불구속 기소

금품향응·여론조작 順 뒤이어

6·13지방선거 공소시효가 13일 만료되는 가운데 전남경찰이 7명을 구속하고 28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남경찰청은 6·13지방선거 당시 돈선거 등으로 총 380건, 722명이 단속됐으며 이중 7명 구속, 286명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429명에 대해 수사종결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지사, 교육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 송치사건은 없으며 목포시장 2건, 나주시장 1건, 함평군수 1건, 강진군수 1건, 장성군수 1건 등이다.

선거사범 단속은 흑색선전이 191명(26.4%)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향응 142명(19.6%), 여론조작 127명(17.5%) 등 순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411건, 총 664명이 단속됐으며 구속자는 2명에서 7명으로 5명 증가했다.

/전남=양수녕 기자

인천시 사상 첫 수출 400억弗 달성 초읽기

10월 338억달러… 6년간 상승세

인천 수출이 드디어, 2013년 이래 6년 연속 특·광역시 유일하게 수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400억불 돌파가 예상된다.

인천시는 올 한해 글로벌 통상분쟁, 보호무역주의 파고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천 수출성장의 주인공인 관내 수출기업과 수출 유공자와 함께 2018년 인천무역의 날 행사를 13일 송도 오라카이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 공동으로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용범 시의회의장, 이상범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 인천기업협의회 및 관내 수출유관기관 단체장과 수상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인천 수출의 탑 수상기업은 첨단정보기술(IT), 디지털산업 부품인 인쇄회로기판을 생산하는 비에치가 4억달러, 데이터디스플레이장치를 생산하는 코텍이 3억달러 수출탑 등 80업체가 수상했다. 산업포장을 받은 벤다선광공업의 유권범 대표 등 31명의 임·직원이 유공 표창을 받았다.

또한, 수출기업 중 최고의 수출성장을 기록한 비씨 등 4개 기업이 인천시장상을 수상했다.

인천 수출은 17개 시·도 중 충청북도와 유일하게 지난 6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 10월기준 338억달러의 수출성과로 올해 400억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수출 품목과 유사하게 인천도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등의 비중이 30%를 차지했고, 자동차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고른 증가세를 유지해 400억불 달성과 함께 무역도시로 발돋움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올해 최고의 성과를 일궈낸 기업과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올해의 수출 성과는 살고싶은 도시 함께만드는인천의 원동력이고 큰 자랑이며, 내년에도 글로벌 인천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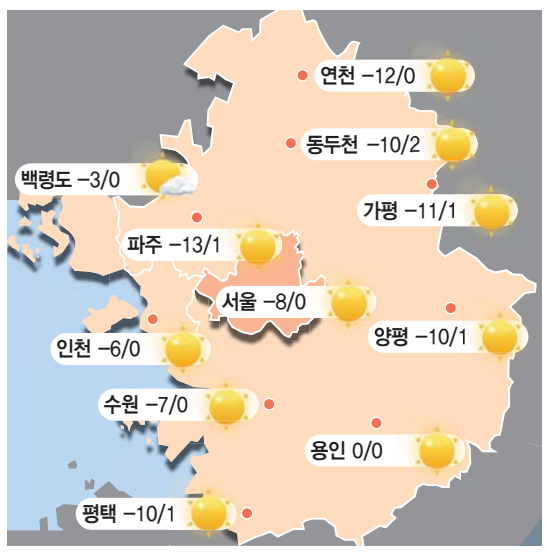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39 | 해짐 / 17:14

12월 14일(金)
음력 : 11월 8일

수도권 날씨 -8~0℃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